

중국, 대북 석유제품 공급 전면 중단

로이터 보도 “초강수 제재” 대북 석유제품 수입 금지도 LPG·에탄올 수출은 급증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지난날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날 북한에 휘발유, 항공유, 경유, 연료유 등 모든 종류의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일

이다. 중국은 2003년 3월 북한이 동해 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 원유 공급을 사흘 동안 중단한 적이 있으나, 이후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석유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날 북한에서 철광석, 석탄, 납 등의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북한으로의 곡물 수출도 급감해 옥수수 수출은 일 년 전보다 82% 줄어든 100t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쌀 수출도 64% 급감한 672t에 머물러,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방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액화 석유가스(LPG) 수출은 일 년 전보다 58% 늘어 99t을 기록했다. 바이오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에탄올 수출도 82% 증가해 3428t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 달러(약 4060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6억 1320만 달러보다 36.7% 급감했다.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입액도 지난해 11월 2억6220만 달러보다 61.8% 줄어든 1억 18만 달러(약 1080억원)에 그쳤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산 석탄,

철광석, 납, 해산물 수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9월 23일부터 대북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10월부터는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기로 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9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평가받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을 기존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고,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시키는 내용의 새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3월 이후 개최 논의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3월 이후에 여는 방향으로 한중일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7일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3월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아울러 중국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해 2015년 11월 한국 개최 이후 2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내년 3~4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 방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락카 찾은 산타 26(현지시간) 시리아 락카에서 산타클로스 분장을 한 남성과 어린이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국 등이 지원하는 동맹군에 밀려 지난 10월 실질적 수도인 락카에서 패퇴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에서 4기 집권에 도전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지지율 2%도 안 되는 푸틴 대통령 정적(政敵)의 대선 출마를 막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유죄 판결을 이유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장관(EEAS)이 “러시아 다원주의와 내년 민주적 선거 전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푸틴의 ‘독주체제 다지기’

2% 지지율 정적 대선 출마 막아

EEAS는 또 성명에서 유럽인권법원이 “2013년 나발니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시킨 뒤 “정치적 동기에 처벌한 것을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레바다-첸트르’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푸틴 대통령에

이유에서다.

나발니는 러시아 선관위 결정 후 “푸틴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나와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대선에는 푸틴과 그가 직접 뽑은 후보자들만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부패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보이콧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의 딸인 방송인 크세니아 소브차크 등이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나발니는 이어 트위터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나발니 캠프 관계자들은 나발니가 먼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뒤 대선 투표일 전까지 항의시위를 조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부자만 더 부자됐던’ 지구촌의 한해

증시 강세·규제 완화 호조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자들에게 좋은 해였다고 미국 CNN머니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증권·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랠리를 펼치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에는 여러모로 유리한 해였다는 해석이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명품 소비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럭셔리 인스티튜트의 밀턴 페드라자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명품 소비의 증가는 부유층의 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럭셔리 시장의 성장이 주식 시장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늘어난 부를 다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의 부 축적 배경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성적을 낸 증시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 대폭 완화된 규제 등이 지목됐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인덱스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초 대비 각각 20%, 25% 상승

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대거 보유한 부자들은 투자 이익과 배당금도 늘어났지만, 주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중 절반만이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주식을 직접 보유한 사람의 비율도 18.7%에 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도 부유층의 부 축적에 도움을 줬다.

미국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실러에 따르면 미국의 집값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던 시에 틀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노동계층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밖에 미국의 기업이익(재고평가와 자본소비비 조정 없는 세후 기준)이 3분기에만 1조86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규제 완화와 세제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부자들이 자산을 불리는 계기가 됐다. CNN머니는 “이러한 부의 증가는 미국의 경기호황에 불구하고 소득 최고와 최저 계층의 경제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알베르토 후지모리(79) 전 페루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자신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면된 뒤 병상서 사죄한 前 페루 대통령

반인권, 부패 혐의로 25년형을 받고 12년째 복역하다 사면된 알베르토 후지모리(79) 전 페루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통치기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죄했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사면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영상을 올려 “나의 정부가 한편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포들

을 실망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날 영상도 흰 가운을 입고 병상에서 찍어 올렸다. 일본계 페루인인 그는 1990~2000년 집권 기간 학살과 납치, 횡령 등으로 2009년 2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예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